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금융]

- YahooFinance: 관세와 연준 불확실성에 미 주식과 국채 하락
- Bloomberg: 미 금리 인하 베팅에 금값 3천5백불 상회

[무역 정책]

- CNNBusiness: 연방항소법원, 트럼프의 주요 관세 거부 판결...10월까지는 관세 유효
- YahooFinance: 연방재무장관, "대법원의 관세 지지 판결 확신"
- WSJ: 9월의 트럼프의 주요한 정책 시험대

[글로벌 경제]

- WSJ: 한국, 8개월만에 인플레 최저

[오일]

- WSJ: OPEC+, 석유 공급 과잉 우려에도 생산량 유지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Bloomberg: 맥도날드 CEO, "미국 브랜드 평판 줄었다"
- Bloomberg: 일론 머스크, "테슬라 가치의 80%는 옵티머스 로봇에서 창출할 것"
- WSJ: Kraft Heinz, 두 회사로 분할한다
- CNBC: '월마트의 최신 AI 혁신은 대형 소매업체의 변화를 의미'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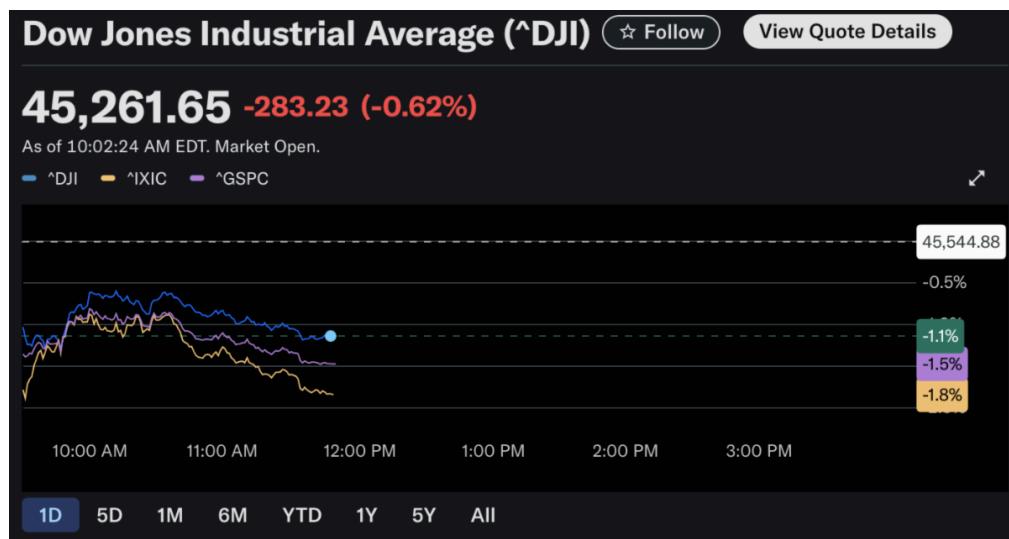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금융]

YahooFinance: Dow, S&P 500, Nasdaq sink as Treasury yields jump amid tariff, Fed uncertainty

관세와 연준 불확실성에 미 주식과 국채 하락

- 오늘 화요일 미 주요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역사적으로 성적표가 가장 낮은 9월이 시작되고 있다. 월가는 이번주에 발표되는 월간 일자리 보고서가 금리 인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 국채의 경우 30년물은 금리가 거의 4.96%로 지난 7월 이래 처음으로 5%를 바라보고 있고 10년물 금리는 거의 4.3%에 근접하고 있다.
- 나스닥은 1% 이상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S&P 500은 1% 가까이 하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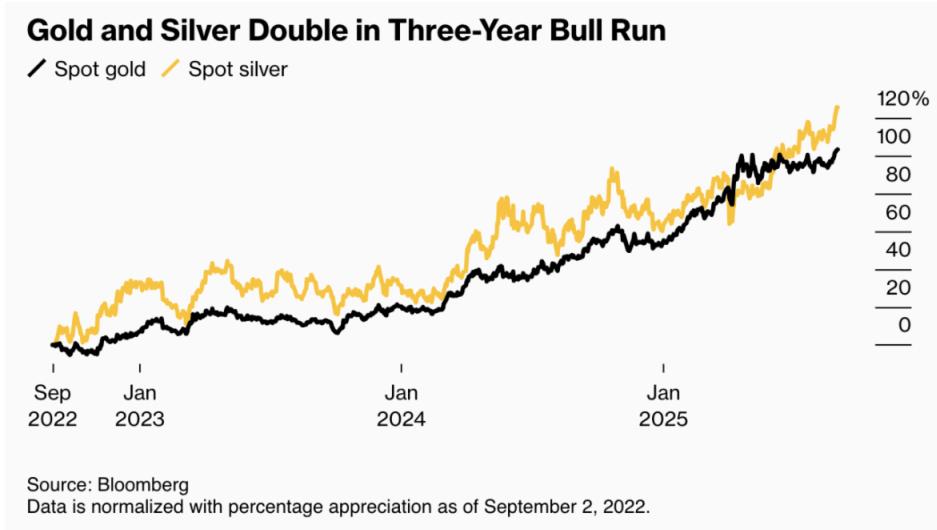


YahooFinance 기사

Bloomberg: Gold Touches Record High Above \$3,500 on US Rate-Cut Bets

미 금리 인하 베팅에 금값 3천5백불 상회

- 미 금리 하락 전망과 연준의 향후 구조에 대한 우려가 지난 수년간 금가격 랠리 추세를 밀면서 금가격이 최고치를 잠시 보이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금값은 올해 30% 올라 수익률이 높은 주요 상품중 하나로 연준이 이달에 금리 인하를 기대할수 있을 것으로 투자자들은 보고 있다.
- 한편 투자자들은 8월 현재 7개월간 연속해서 은(Silver) 기반은 상장지수펀드(ETF)를 구매하고 있어 런던 시장에서 자유롭게 유통가능한 비축량이 줄어들어 타이트한 시장에서 은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Bloomberg 기사

[무역 정책]

CNNBusiness: Appeals court strikes down many Trump tariffs, but delays enforcement until October

연방항소법원, 트럼프의 주요 관세 거부 판결... 10월까지는 관세 유효

-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금요일 트럼프의 주요 관세 조치들에 거부하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가 불법적으로 비상 권한을 관세 부과에 이용했다는 것이다.
- 연방순회법원은 금년 초에 트럼프가 사용한 관세들에 '국제긴급경제권한'(IIEPA)를 이용할수 없다며 트럼프 관세에 대한 하급 법원의 위헌명령에 손을 들어주었다.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의 핵심 권한이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상호 관세 등에 해당되며 철강, 자동차, 알루미늄 등 232조항에 따른 품목별 관세에는 해당 되지 않는다.
- 그러나 이번 판결은 효력은 10월까지 연기됐는데 트럼프는 이 기간동안 대법원 항소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CNNBusiness 기사

YahooFinance: Trump tariffs live updates: Bessent sees Supreme Court upholding tariffs as Trump blasts India

연방재무장관, “대법원의 관세 지지 판결 확신”

- 연방재무장관은 어제 월요일 대법원이 '국제긴급경제권한'(IIEPA)에 기반한 1977년 관세법 사용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것이 거부될 경우 다른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 그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오랫동안의 미 무역 적자와 미국으로의 펜타닐 밀수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법적 의견서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 한편 트럼프도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모든 관세는 유전히 유효하다”면서 항소 법원의 판결은 당파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대법원의 지지 판결로 관세 효력이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YahooFinance 기사

WSJ: Trump's September Is Filled With Tough Deadlines 9월의 트럼프의 주요한 정책 시험대

- 9월 들어서는 트럼프 입장에서 연방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의회와 협상 데드라인을 다가오는 기간이다.
- 트럼프는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평화 협정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미국의 보복 가능성이 결정되는 데드라인을 이들 국가들에 통보했었다.
- 그는 그의 주요 경제 안건과 대선 약속의 핵심인 관세 적법성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WSJ 기사

[글로벌 경제]

WSJ: South Korea's Inflation Hits Nine-Month Low 한국, 8개월만에 인플레 최저

- 8월 한국의 인플레가 작년 비교해 연율로 1.7%를 기록했다. 지난 11월 이래 가장 낮았다. 한국은행의 목표는 2% 였다.
-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달 비교해 0.1% 떨어져 예상치를 빗나갔다. 가솔린 가격과 통신비는 낮아졌다.
- 한국은행은 올해 8월 금리를 동결했으나 지난해 10월 이래 기준 금리를 0.1% 떨어뜨렸다.

WSJ 기사

[오일]

WSJ: OPEC+ Set to Hold Output Steady as Oil Glut Anxiety Looms OPEC+, 석유 공급 과잉 우려에도 생산량 유지

- 석유 시장이 세계적인 공급 과잉에 대비하는 가운데, OPEC+의 주요 회원국들은 일요일에 회동하여 생산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 이들은 하루 22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했었으나 이를 해제하고 공급 계획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으며, 불확실한 경제 속에서 이 방안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HSBC는 브렌트유 가격이 2026년까지 배럴당 65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이미 예상되는 공급 과잉으로 인해 OPEC+이 추가로 증산할 경우 하방 리스크가 있다고 경고했다.
- 한편, DNB 애널리스트들은 “2026년 하반기부터 공급 과잉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밝은 장기적인 전망을 내보였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Bloomberg: McDonald's CEO Says American Brands' Reputations Have 'Dimmed' 맥도날드 CEO, “미국 브랜드 평판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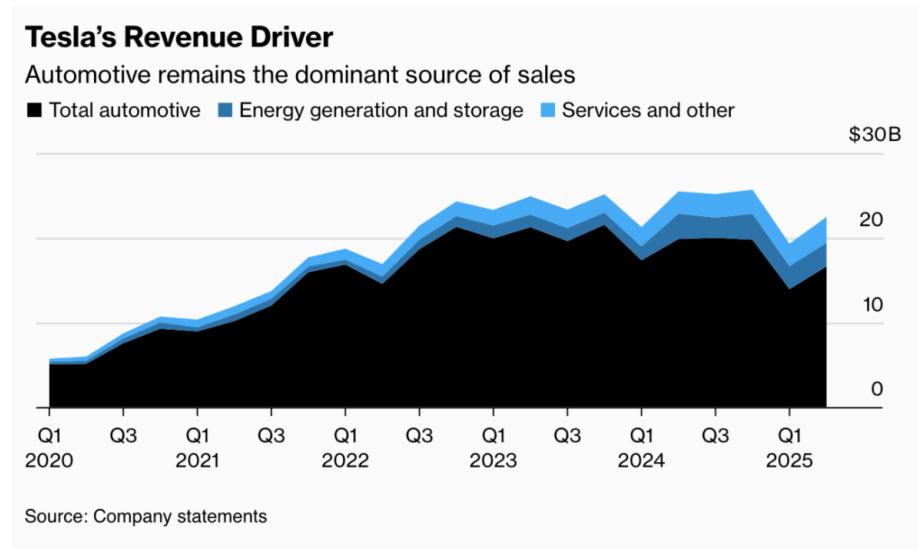
- 맥도날드의 CEO Chris Kempczinski는 미국에 대한 인식이 점점 부정적으로 변하면서 전 세계 소비자들이 미국 브랜드를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러나 Kempczinski는 “맥도날드가 전통적으로 상징적인 미국 브랜드로 여겨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해외에서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맥도날드 자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시선이 크게 부정적이지는 않다”고 전했다.
- 그는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맥도날드는 지역 사회 내에서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에 집중할 것”이라 전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Tesla Will Derive 80% of Its Value From Optimus Robot, Musk Says

일론 머스크, “테슬라 가치의 80%는 옵티머스 로봇에서 창출할 것”

- 일론 머스크가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 인간형 로봇을 선호하면서 테슬라의 자동차 사업을 축소하고 있다.
- 그는 월요일, 회사 가치의 80%를 옵티머스(Optimus)에서 창출할 것이라 전했는데, 이는 4년 전 발표한 로봇 사업의 일환이다.
- 머스크는 소셜 미디어에서 “우리는 AI를 현실세계에 접목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으나, 옵티머스를 본격적으로 사업화하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족한 상황이다.



Bloomberg 기사

WSJ: Kraft Heinz Is Splitting Into Two Companies

Kraft Heinz, 두 회사로 분할한다

- Kraft Heinz가 2015년 대규모 합병을 정리하며 두 개의 별도 회사로 분할하게 된다.
- 두 개 회사중 한개는 북미 그로서리 필수품에 집중하고 다른 회사는 글로벌 차원서 ‘맛의 향상(taste elevation)’에 집중하게 된다
- 이 회사는 최근 몇 년간 맥앤치즈, 마요네즈 등 핵심 제품에 대한 수요가 약화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올해 운영 비용이 5%에서 7% 사이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 Kraft Heinz의 책임자 Miguel Patricio는 이번 분할을 통해 “각 브랜드의 잠재력을 끌어내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자원을 할당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 식품 업계는 그동안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해왔는데, Kraft Heinz는 이러한 전략을 뒤바꾸고 더욱 집중적인 사업을 만드려는 것이다.

WSJ 기사

CNBC: Walmart's latest AI innovations represent a shift for big retail
'월마트의 최신 AI 혁신은 대형 소매업체의 변화를 의미'

- 월마트가 최근 Retail Rewired 행사에서 네 가지 슈퍼 에이전트 출시를 발표했다. 이에는 판매자 및 공급업체를 위한 Marty, 소비자를 위한 Sparky, 직원들을 위한 Associate Agent, 그리고 개발자들을 위한 Developer Agent가 포함된다.
- 이는 관세와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압박 속에서 매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월마트뿐만 아니라 많은 소매업체들이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 월마트는 또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향상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는 월마트의 매장과 모든 상품을 가상으로 복제하는 AI 기반 기술인데,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최대 2주 전부터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게 된다.
- 월마트는 작년에 이 기술을 활용하여 모든 비상 경보를 30% 줄이고, 냉장 유지 관리 비용도 19% 절감했다고 전했다.

CNBC 기사

[보고서]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에...금·은 가격 사상 최고치
금 현물도 온스당 3천500달러 넘겨...은값은 온스당 40달러 돌파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에 '연준 흔들기' 지속...안전자산 선호 심리 자극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 기대가 커지면서 2일 금 현물 가격이 온스당 3천500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아시아 시장에서 금 현물 가격이 0.9% 상승하며 온스당 3천 508.70달러까지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금 현물 가격은 이후 3천497달러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방위적인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기록했던 종전 최고가를 갈아치운 것이다.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